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광주시내 구(區)간 경계조정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 경계조정 민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계조정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의 자치구간 인구와 재정,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대표적 자치구는 동구다. 광주시의 중심이었던 동구의 인구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이전 등에 따른 구 도심권 공통화 현상으로 지난 1992년 17만2천여명에서 6만여명이나 줄어든 11만2천명에 불과하다. 인구 격차는 재정 및 행정서비스 격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동구는 자치구로서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부구청장의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됐고 의회 사무국도 과(課)로 내려 앉았다. 지방세와 세외수

구(區) 경계조정 '공방'만 할 건가

나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몰락하는 동구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구간 경계조정은 광주민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의 광역시들은 구간 경계조정으로 물살을 끊고 있다. 특히 도심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전국에서 구간 경계조정에 성공한 사례는 경기도의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광주시도 지난 2001년 구간 경계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 상무, 풍암, 금호, 문

흥, 첨단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화되자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과 정치인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민공청회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말았다.

근본 원인은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자치구 국회의원들은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인구와 면적 등 지리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고 떠넘기식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북구 일부 지역을 떼어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광주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위원회' 발족에 기대

구간 경계조정을 '팡 뺏기'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시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경계를 조정해야 쓰레기 수거와 보건복지, 민원 등 전반적인 행정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치구에 맡겨서는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치구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대론자들을 압박하며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다.

광주시는 구간 경계조정 민간위원회의 발족에 맞춰 합리적인 경계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바란다. 북구의 인구(46만3천 100명)가 동구(11만2천명)의 4배를 넘는 현실이 정상일 수는 없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상황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황금 분할'을 통해 자치구간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광주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논설장〉 dy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온펜칼럼

정범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긴 과정에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다. 위원장도 새로이 정해졌고 곧 추진단장을 도모절차를 거쳐 임명된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이라는 하드웨어 구축에 무게중심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를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보다 전문적이고 큰 규모의 교육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인재양성을 통해 만들 실한 상황이다.

아시아 문화산업대학원 설립을 제안한다

어내는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야 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문교육기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사업이자 한국문화의 백년 대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가칭) 문화산업대학원의 설립을 제안한다.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갖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그 기조 내에서 혁신적인 문화산업육성계획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콘텐츠개발과 산업 활성화, 문화산업플러스터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인프라 구축 방안은 보다 규모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광주의 문화산업 진흥책이 실현되고 있지만 현재

(가칭)아시아문화산업대학원은 지역의 학문적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활용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석박사 과정을 통해 아시아 문화리더를 키우는 중심이 될 것이다. 문화산업을 이끌 문화리더는 다양한 분야를 결합시켜 창조적으로 콘텐츠를 빚어내는 오케스트리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지휘자가 곡을 새롭게 해석하듯 주어진 문화자원을 현대기술과 과학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독창적인 콘텐츠로 기획해 구현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산업대학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 속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2006년 7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전기양수기 감전 사고율 높아, 안전수칙 지키는 것 중요

농촌 논·밭에는 전기 양수기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에도 전선을 이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전기양수기를 활용하는 장소는 다목적 이용성이 높은 장소를 선택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주위에 들어진 전선이나 금속성 물질과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되고 부득이 작업이 필요할 때는 한전에 연락, 전력을 차단한 뒤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군·영암소방서 김진119안전센터

해수욕장을 찾는 일부 관광객이 해수욕장 모래사장 내에 무리하게 차량을 진입시켜

피서객의 보행 진입로 및 백사장 모래 등 주변 환경을 훼손시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차량의 바퀴가 모래에 빠져 헛바퀴가

돌아 빠져나오지 못해 차량을 견인해달라는 민원이 들고 있다.

모래밭에 진입해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

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입했던 사륜 구동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해수욕장 모래는 알갱이가 너무도 부드러워 차량의 바퀴가 아무리 커도 모래밭에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자신만의 피서가 아닌 타인들도 좋

은 환경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선욱·완도경찰서 신지파출소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공공요금 인상률 서민가계 허리 훤다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와 교통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불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마저 인상되면 경기회복 기운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요금을 잇달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평균 9.3% 올랐던 열차운임이 8개월 만에 2.5~6.5% 인상되고 공공요금은 아니지만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값도 2 달 35원이나 오를 예정이다. 생활필수품이 된 차량용 휘발유 가격은 올 들어서만 무려 8.3% 뛰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한층 나빠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쓰레기봉투요금

교육부-대학 '입시안 갈등' 접점 찾아야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대학들이 내신을 최고 50%까지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 이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대학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행정적·재정적 재제를 가하기로 했다.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강력 반발하며 대회마저 거부할 테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한까지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 혼란을 빚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와 대학간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시안을 놓고 같은이들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 혼란을 빚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와 대학은 접점을 찾아야 한다. 대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감수하면서 교육부 방침을 무시하는 전형을 시행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들도 학생 선발권이 중요하다지만 '내신 무력화'를 고집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해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無等鼓

"아버지, 돈 베락 맞아 죽은 사람은 봤어도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쩐의 전쟁' 주인공 금나리의 외침이다. 돈이 없어 사체업체 마동포에게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해 죽임을 당한 아버지로 인해 돈에 한이 맺힌 금나리. 그는 돈과 마동포에 복수를 하기 위해 수차 연합 끝에 마동포의 지하금고를 알아냈고,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낸 뒤 새 열쇠를 채워놓는다. 발악하는 마동포를 조종하며 빚이 있는 한일 두루 떠나고, 곳곳에서 고통을 입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이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도련님의 '건설포 교육'은 우리 광주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입곡 끝에 탑스런 수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그